

##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황과 정책적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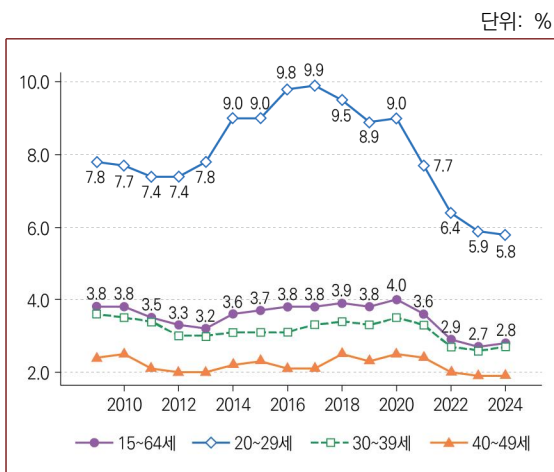
### | 요약 |

- 최근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미스매치는 지난 15년간 2배 가까이 증가
  - 작년 실업률은 3% 미만으로 코로나19 이전보다 개선되었으나 실업률에 집계되지 않는 '쉬었음' 비경제 활동인구가 급증하고 체감 고용 상황은 악화되고 있음.
  - 미스매치는 구직자와 빈 일자리 변동을 모두 고려하여 실제 고용 현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지표
  - 미스매치로 인한 고용 손실은 2010년 1만 2,000개에서 2024년 7만 2,000개까지 증가
- 최근 미스매치 증가는 경제 전체 구직인원 감소와 산업 간 인력 불균형, 매칭효율성 저하에서 기인하였으며, 이는 노동시장 기능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
  - 경제 전체 구직인원이 코로나19 이전 평균 대비 약 30% 감소하고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 도소매업 등 주요 산업의 구직자 감소폭이 커 산업 간 인력수급 불균형 심화
  - 빈 일자리와 구직자 매칭이 고용까지 연계되는 정도를 나타내는 매칭효율성 역시 주요 산업 중심으로 약 3% 하락하여 미스매치를 더욱 악화하는 요인으로 작용
- 노동시장 미스매치로 반도체, 이차전지, 의료·정밀기기 등 기술혁신이 중요한 첨단산업의 전문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 적시성 있는 인력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
- 미스매치는 산업 간 좋은 일자리의 편차, 일자리 이동제약이 많은 노동자의 비중, 구직자·일자리 수도권 집중도가 커질수록 증가하며, 이를 개선하는 정책으로 미스매치 완화 모색 필요
  - ① 고임금, 정규직과 같은 구직자 선호 일자리의 산업 간 편차가 커질수록 인력 쓸림이 심화, 인력 유입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 내용을 사전 검토한 '좋은 일자리 정책'이 필요
  - ② 일자리 이동 비용이 높은 고학력 구직자가 증가할수록 미스매치가 높아지므로 전문인력 수급과 고용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 특화 인재양성' 지원 방향 수정
  - ③ 비수도권 인력 분산의 한계를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사업과 같은 지역인재 연계형 일자리 창출로 보완하여 비수도권 고용 활성화와 미스매치 안정을 함께 추구

## ■ 고용지표 개선에도 체감 고용난은 심화, 최근 노동시장 현황을 고용지표가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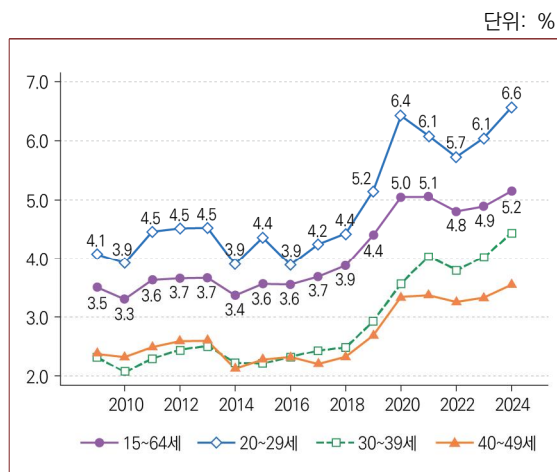
- 최근 실업률과 고용률이 호조세를 보이며 코로나19 이전보다 고용지표가 개선
  - 실업률\*은 2022년 이후 3%를 하회하며 코로나19 이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지표상 고용은 호조세가 지속되는 상황
    - \* 15세 이상 64세 미만 경제활동인구 대상 실업률(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 기준
  - 특히,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29세 청년층 실업률은 2020년 코로나19 충격 이후 오히려 감소하여 2009년 이후 최저치인 5.8% 수준을 기록(〈그림 1〉 참조)
- 반면, 체감 구직난은 악화되고 있어 고용지표가 실제 노동시장 상황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 우려
  - 경제활동 '쉬었음' 인구 증가와 악화되는 체감 고용률과 비교할 때, 최근 고용지표는 지나치게 긍정적인 수준으로 산출
  - 〈그림 2〉를 참고하면 비경제활동인구 중 육아, 학업과 같은 특별한 이유 없이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인구 비중이 꾸준히 증가
  - 특히 20대의 '쉬었음' 비중은 청년실업률이 하락하기 시작한 2018년부터 도리어 급증, 청년실업률 하락 원인 중 하나로 구직 포기 청년의 증가를 꼽을 수 있음.
  - 실업률이나 고용률 같은 고용지표가 노동시장과 고용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 이를 보완할 추가적인 지표 관리와 정책 반영 필요

〈그림 1〉 연령별 실업률 추세



자료: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연령별 실업률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 실업률=실업자 수÷경제활동인구.

〈그림 2〉 '쉬었음' 비경제활동인구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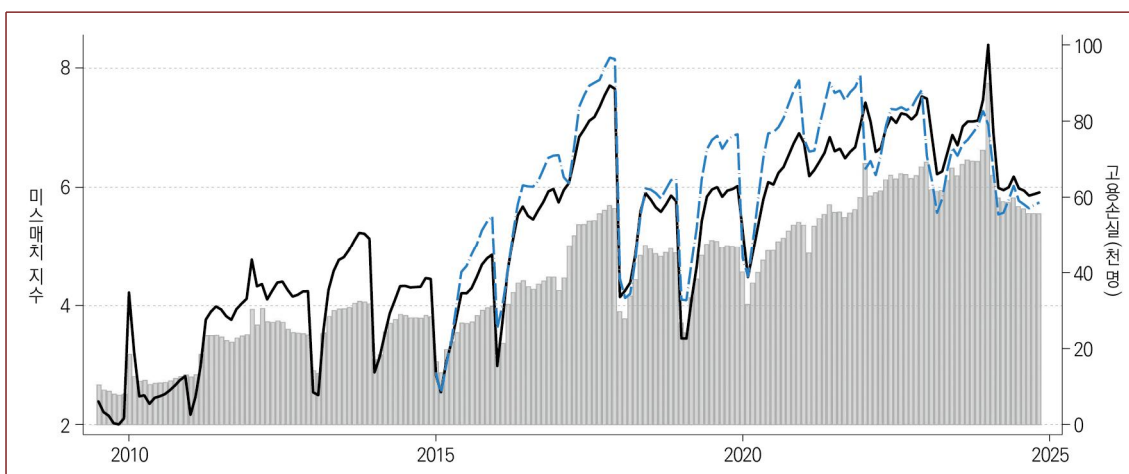


자료: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 '쉬었음' 인구 비중은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활동상태(쉬었음)를 총비경제활동인구로 나눈 값.

## ■ 실제 고용 상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지표인 미스매치 지수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할 때,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개선과 매칭효율성 제고가 긴요

- 미스매치는 구직자(공급)와 빈 일자리(수요) 변동을 모두 고려하므로 앞서 고용지표가 설명하지 못하는 실제 노동시장 상황을 이해하는 데 유용
  - 미스매치 지수\*는 노동 공급(구직자)과 수요(빈 일자리) 변동을 종합적으로 반영, 구직자 중심의 고용 지표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제 고용 현황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sup>1)</sup>
    - \* 미스매치 지수(mismatch index)는 각 산업 내 구직자와 빈 일자리, 매칭효율성을 고려한 사회적 최적(optimal) 고용<sup>2)</sup>과 실제 고용의 차이를 측정한 값<sup>3)</sup>
  - <그림 3>에서 2010년 이후 미스매치의 지속적 상승이 관찰되는데, 이는 노동시장 내 구직자와 빈 일자리 매칭이 원활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체감 고용난이 실재함을 시사
- 2024년 상반기 미스매치 지수는 2010년 상반기 4% 대비 2배 증가, 고용 손실은 기존 1만 2,000개의 6배 수준인 7만 2,000개로 추정되어 고용 손실이 빠르게 증가(<그림 3> 참조)

<그림 3> 미스매치 지수와 미스매치로 인한 고용 손실 추세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와 「사업체노동력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 주: 1) 검은 실선은 구직자를 실업자로 한정하여 산출한 미스매치 지수, 파란 점선은 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모두 구직자로 가정하고 산출한 미스매치 지수, 회색 막대 그래프는 미스매치로 인한 고용 손실을 나타냄.  
 2) 미스매치 지수와 관련된 상세한 산출 방법은 민순홍(2024)을 참고.  
 3) 미스매치로 인한 고용 손실은 미스매치 지수에 사용된 사회적 최적 고용과 실제 고용의 차이.

1) 구직자를 실업자로 한정한 경우(<그림 3> 검은 실선)와 잠재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미스매치(파란 점선) 패턴이 유사하여 실업자만을 대상으로 산출된 미스매치 지수도 구직포기자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정보 제시.

\* 잠재경제활동인구는 ①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취업가능성이 없는 구직자(잠재취업가능자)와 ② 지난 4주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으나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한 사람(잠재구직자)의 총합으로 2015년 이후 산출됨.

2) 사회적 최적 고용은 경제 전체의 총생산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실업자가 각 산업에 배정되었을 경우 발생하는 고용 수준. 각 산업별 매칭효율성과 빈 일자리 수를 고려하여 실업자 분배가 이루어짐.

3) 미스매치 지수는 Sahin et al.(2014)\*의 방법론을 따라 산출하였으며 구체적인 산출 방법은 민순홍(2024)\*\*을 참고.

\* Şahin, A., Song, J., Topa, G., & Violante, G. L.(2014), "Mismatch unemploy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104(11), pp. 3529-3564.

\*\* 민순홍(2024), 「산업별·직종별 미스매치 현황과 결정요인 분석」, 연구자료 2024-12, 산업연구원.

- 최근 미스매치 증가추세는 국내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심화를 나타내며, 인력수급과 매칭효율성 개선에 관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시사
  - 미스매치는 (1) 산업 내 구직자가 빈 일자리 대비 과대 또는 과소하여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2) 노동시장 전반의 효율성 하락으로 구인-구직 매칭률이 떨어질 때 발생
  -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난 최근까지 미스매치가 견조하게 증가하는 현상은 국내 노동시장 기능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음을 암시
  - 따라서 고용 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산업 간 적절한 인력배치와 노동시장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며 미스매치 지수를 통해 개선 여부를 추적 관리할 필요

### ■ 최근 국내 노동시장의 구직인원 감소와 산업 간 인력 불균형 확대, 구직자-빈 일자리의 매칭 효율성 하락이 미스매치 증가의 주요 원인

- 코로나19 이후 미스매치는 경제 전체의 구직자 수 급감으로 촉발되었으며, 제조업 등 주요 산업에서 구직자 감소 규모가 커 미스매치를 더욱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
  - 2024년 현재 구직자 수는 2020년 이전 평균 대비 약 35% 감소하였으나 빈 일자리는 오히려 10% 상승, 빈 일자리 수 대비 구직자 비율이 절반으로 감소(〈표 1〉 참조)
  - 이는 경제 전체의 노동력 조달 자체가 고용 문제의 선결과제임을 시사
  - 특히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 도소매업 등 주요 산업의 구직자 감소에 따라 산업 간 인력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경제 전체 구인난 대비 미스매치가 과도하게 악화
- 고용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인 제조업에서 빈 일자리당 구직자 수가 2015년 5.5명에서 2024년 3.2명<sup>4)</sup>으로 약 40% 감소하여 인력수급이 심각한 상황
  - 고용 여건이 양호한 일자리가 많은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빈 일자리당 구직자 수 비율 역시 40% 이상 감소, 구직자 선호가 높은 일자리의 노동 공급도 부족

〈표 1〉 구직자와 빈 일자리 수 추세

단위: 천 명, 천 개, 명, %

		2015년	2017년	2020년(A)	2022년	2024년(B)	(B/A)
구 직 자 (u)	실업자	976	1,023	1,108	833	823	74.3%
	잠재경제활동인구	1,747	1,640	1,876	1,568	1,091	58.2%
	합계	2,723	2,663	2,984	2,401	1,914	64.1%
빈 일자리(v)		969	1,014	1,043	1,222	1,141	109.4%
빈 일자리당 구직자 수(u/v)		2.81명	2.63명	2.86명	1.96명	1.67명	58.4%

자료: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사업체노동력조사」 연 단위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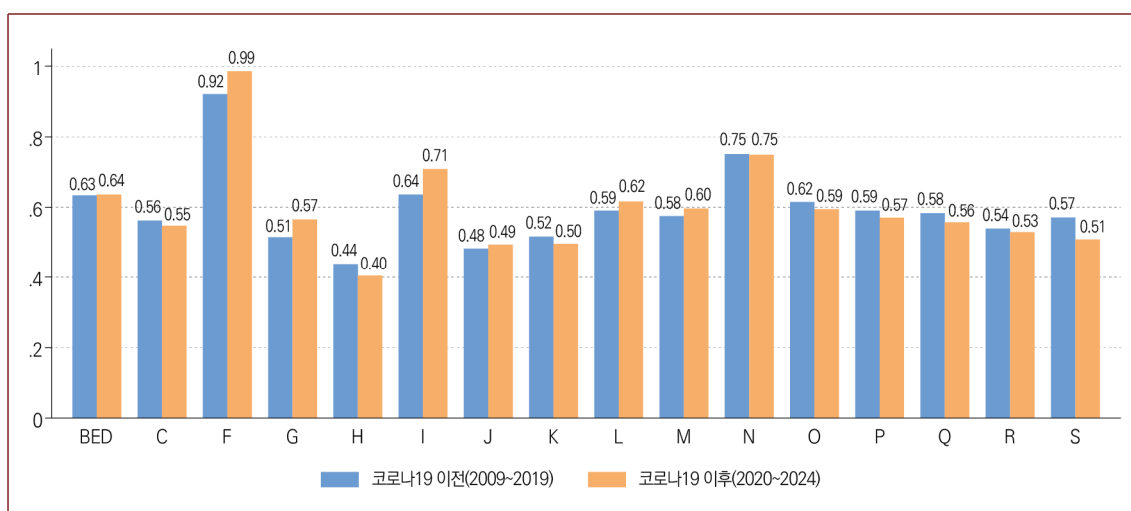
주: 1) 잠재경제활동인구는 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보조지표(전체), 2015년부터 활용 가능.

2) 빈 일자리당 구직자 수는 유효구인배율(=빈 일자리 수÷구직자 수)의 역수임.

4) 제조업 내 실제 유효구인배율은 2015년 0.18에서 2024년 11월 0.31로 증가.

- 빈 일자리와 구직자가 신규 채용으로 연계되는 매칭효율성이 감소하고 있으며, 제조업과 같은 주요 산업의 매칭효율성 하락과 노동시장 전반의 질(quality) 저하가 우려
  - <그림 4>를 참고하면 코로나19 이후 주요 산업 매칭효율성\* 감소는 구직자와 빈 일자리 수가 동일 하더라도 신규 채용이 감소했음을 의미
    - \* 노동시장의 매칭효율성은 산업 내 동일한 수의 구직자와 빈 일자리가 있을 때 신규 채용으로 이어지는 비율로 산출됨.
  - 이는 구직자 감소 효과를 배제하더라도 구직자와 일자리를 연계하는 노동시장 효율 감소가 미스매치 증가에 유효하게 작용하였음을 의미
  -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점업 등 일부 임시·일용직 비중이 높은 산업에서 매칭효율성이 증가한 이유는 팬데믹으로 급감한 비정규직 채용이 단기간에 회복되었기 때문
  - 제조업 등 주요 산업의 정규직 미스매치 증가를 비정규직 채용으로 상쇄하는 것은 단순히 매칭효율성 수치의 감소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

〈그림 4〉 코로나19 전후 산업별 매칭효율성



자료: 저자 작성.

주: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대분류 기준.

BED는 B.광업, D.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E.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을 합산한 결과임.

## ■ 기술혁신이 중요한 반도체, 이차전지, 의료정밀기기 등 첨단산업에서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 적시성 있는 인력 공급을 위한 대책 마련 시급

-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전문인력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
  - 제조업 인력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의료·정밀기기, 이차전지, 산업용 로봇\* 등 첨단 업종에서 전문인력 부족이 심각(그림 5) 참조

- \*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의료·정밀기기는 (27)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이차전지는 (28)전기장비, 산업용 로봇은 (29)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에 속함.<sup>5)</sup>
- 구인 대비 채용인원, 즉 채용률 역시 하락 추세로 2015년 90%에서 2024년 70% 수준까지 감소, 단 시간 내 전문인력 수급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첨단산업은 기술 집약도가 높고 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이므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 인력의 적시 공급이 중요, 인력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

〈그림 5〉 제조업 내 산업별 전문직 구인인원·부족인원 추세

단위: 명



자료: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C.제조업 내 중분류 기준.

2) 종사자 수가 적은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32.가구제조업, 19.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은 생략함.

## ■ 실증분석 결과, 미스매치는 좋은 일자리 편차, 고학력·고령·여성 노동자의 경제 참여 정도, 수도권 집중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

- 미스매치 완화 대책은 실증분석을 통한 증거 기반(Evidence-based)으로 미스매치 결정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어야 함.

5) 괄호 안의 숫자는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중분류를 나타냄.

- (일자리) 고임금·정규직·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좋은 일자리의 산업 간 편차가 커질수록 특정 산업으로 구직자 쏠림 현상이 심화, 인력 불균형에 따른 미스매치 증가
  - 구직자는 임금과 일자리 안정성이 높을수록 좋은 일자리로 인식하며 기업규모가 클수록 임금과 복지 수준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대기업 일자리를 선호
  - 산업 간 평균임금, 정규직, 300인 이상 기업 비중 차이가 커질수록 미스매치가 증가하는데 이는 특정 산업에 좋은 일자리가 집중될수록 구직자 쏠림이 심화되며 그 외 산업의 인력 부족과 산업 간 인력 불균형 문제가 확대되어 전체 고용이 감소하기 때문임.
- (구직자) 미스매치는 고학력자·고령자가 많을수록 증가하고 여성이 많을수록 감소, 구직자의 일자리 선택 제약과 이동 가능성이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
  - 고학력 구직자는 원하는 근로조건이 뚜렷하여 하향 취업을 꺼리고,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로 이직 시 인적 자본 상실과 높은 재교육 비용이 발생, 노동시장 이동에 경직적
  - 반면, 고령자는 근로조건에 까다롭지 않으나 공공근로나 시간제 일자리 등 취업가능한 일자리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정 산업에 고착되는 경향이 높음.
  - 여성은 비정규직,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는데, 이러한 일자리는 회전율(turnover)이 빠르고 채용 조건이 단순하여 매칭효율이 높은 특징<sup>6)</sup>
- (수도권 집중) 빈 일자리와 실업자의 수도권 집중은 매칭 빈도를 증가시켜 미스매치를 감소시키며 실업자의 집중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추정됨.
  - 빈 일자리와 실업자가 수도권에 집중할수록 미스매치가 감소하는데, 수도권 내 집적도가 높아져 매칭 빈도가 증가하여 고용으로 이어지는 건수가 늘어나기 때문임.
  - 수도권 집중은 비수도권의 밀집도 감소와 매칭효율성 감소로 이어지지만, 수도권 매칭효율성 증가가 비수도권의 영향을 상쇄하여 노동시장 전체 매칭효율성 증가
  - 실업자 수도권 집중의 미스매치 감소 효과가 일자리 집중보다 크게 추정, 노동자 이동에 비해 기업의 입지 변경은 거의 불가능해 집중도 변동성이 작은 점이 작용

#### ■ 미스매치를 완화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 전환·산업 특성화 인재 육성·지역 일자리 연계 지원 정책의 개선이 필요

- 산업 간 고용 조건 편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 지원 정책은 인력 유입 효과가 보장될 수 있는 보조금 규모·대상·기간을 사전 검토 후 보완, 미스매치 완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
  - 산업 간 좋은 일자리 편차가 커질수록 저임금·고강도 일자리 기피 현상이 심화되어 정부는 「빈 일자리 해소 방안」<sup>7)</sup>으로 양질의 일자리 전환을 지원하였으나,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의 인력 유입을 유도

6) 단, 고학력 청년 여성은 남성과 일자리 선택이 유사하므로, 대졸 이상 청년 여성의 유입이 증가하면 여성 실업자와 미스매치의 상관관계는 전환될 가능성이 존재함.

7) 「빈 일자리 해소방안」 1차(관계부처합동, 2023. 3. 8), 2차(2023. 7. 12), 3차(2023. 10. 16).



하기에는 지원 규모가 미흡<sup>8)</sup>

- '좋은 일자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력 유입 정책 효과를 사전 검토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지원 규모와 대상, 시행 기간을 결정할 필요
  - 예를 들면, 산업 간 임금 격차 보정을 통한 인력 확보 정책은 목표로 하는 유입 인력 규모가 확보될 수 있는 임금을 먼저 추정한 뒤 보조금을 산정
  - '반도체학과' 같은 산업 맞춤형 인재 육성은 노동시장 비효율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전문인력 수급과 고용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학력별 정책 지원 방향 수정 필요
    - 첨단산업 전문인력 부족은 '반도체학과' 같은 계약학과에서 산업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보편적이나 특성화 인재는 산업 흥망에 따른 노동수요 변화에 유연하지 못하여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산업 전문인력은 석사급 이상에서 육성하고 대졸 인력은 업종 간 호환 가능한 역량을 갖추도록 정책 방향을 조정, 인력수급 해결과 고용효율성 동시 추구
  - 비수도권 고용 활성화와 미스매치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 사업과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 비수도권 고용 활성화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선결 과제이나, 비수도권으로 인력이 분산되면 노동 시장 전반의 매칭효율성이 감소하여 미스매치 악화
    - 비수도권 일자리 창출은 지역인재 채용과 연계되어 설계될 수 있도록 한국형 퀵스타트(Quick Start)\*와 같은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 비수도권의 안정적인 인력수급과 미스매치 감소를 동시에 달성
- \* 퀵스타트(Quick Start)는 기업의 지방투자 시 맞춤형 인력을 적시에 공급, 인력수급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지방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민순홍 산업정책기획실 | 부연구위원 | sh\_min@kiet.re.kr | 044-287-3104

8) 세부적으로 '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의 사업(고용24(<https://m.work24.go.kr>) 참고)을 시행하였으나 해당 산업은 보조금 규모가 작고 지원 대상이 한정적이며 현재 사업이 종료되어 효과가 크지 않음.  
 - '빈 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은 지정된 지역/산업 청년이 취업 후 6개월/12개월 근속 시점에 150만 원 지원.  
 -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지정 산업에 2년 근속 시 기업/정부가 총 800만 원을 매칭 지원. 2024년부터 신규 지원 중단.